

변덕스러운 봄날씨가 이제 여름을 향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일상의 모든 것이 새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오월에 마냥 싱그럽지만 많은 답답함과 부딪히게 되어 건축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하였을 것처럼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글을 씁니다.

참으로 우매하다고 꾸지람을 들을 일이지만 건축에 관련된 법과 절차들을 잘 모르는 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의 딱딱한 문구에 익숙하지도 못하고 너무 자주 바뀌어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좋은 건축을 만든다면 그것은 당연히 법의 테두리에 들어 있을 것으로 넉넉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따라서 그것에 관한 법은 당연히 상식적인 것이며 보편적인 기준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일 터입니다. 우리의 현대건축 역사가 깊지 않고 숨가쁘게 치루어낸 산업화의 과정으로 인하여 법과 제도가 반듯하게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모순과 그릇된 관행이 우리의 건축문화가 제대로 자라는데 장애가 되었음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그간의 잘못됨을

감사원에 보내는 편지

Messrs. Board of Audit & Inspection

김인철 / (주)아르키움 건축사사무소
by Kim In-Cheol

바로잡고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들이 가계에서 일어나 사고로 접철되었던 최근의 악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지나온 지난날들을 돌이켜 보아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찾는 여유를 갖게 된 것은 불행속에서 건져낸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새 건축 운동」,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등을 통하여 그동안 쌓였던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도 시대적인 상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모르기는 하여도 지금의 감사원은 우리들보다 몇 배나 바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하여 모범적인 규범을 제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창조의 작업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이나 우리들이 감사원에 거는 기대도 큼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겪은 작은 경험들은 앞일에 대하여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허가 수속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즈음 많이 지어지고 있는 원룸형식의 다가구 설계도를 검토한 K구에서는 화장실과 부엌에 칸막이를 설치하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주방과 식당과 거실까지 트여진 아파트공간에 오래전부터 익숙해 있음에도 다섯평 정도의 공간을 다시 구분하라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지적의 부당함을 항의하였을 때 K구에서는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다 하였고, 시의 입장도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건교부 지침 30420-518)의 내용을 보면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 구비」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별도의」에 대한 해석입니다. 「공동의」에 반대되는 개별의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아니나 방, 부엌, 화장실을 각각의 것으로 구분한다는 뜻으로 읽으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악법이라도 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하지만 원류를 원하는 일반인에게 상식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실내의 칸막이까지 규정하여야 한다는 개념이 성립된다면 가구의 크기와 위치까지 지정하는 법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그것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의 살림살이까지 단속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상한 일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는 다가구주택과는 달리 소유권의 구분 외에는 규모와 내용이 같은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호 가목의 조항과 시조례 제30조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라는 조항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각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각부분을 건축의 기본형태인 4각형 평면에서 각각의 변을 하나씩의 각부분으로 보는 경우와 각각의 변에서 다시 변화되는 작은 다수의 변들을 각 부분으로 보는 것은 언뜻 느끼기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으나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은 단순한 4각형의 입방체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지의 조건과 내용의 다양성으로 인해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의 해석에 의하면 원형 또는 연속곡선의 평면은 전체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게 되며, 다각형과 굽은 형태의 평면도 불가할 뿐만 아니라 경사진 벽면과 계단식 벽면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연립주택의 경우는 이제껏 세워져 왔던 보편적인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있게 된 것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에서부터 다세대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동주택의 형식을 성격과 규모에 따라 적절한 규정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대단위 아파트단지애나 적용하여야 할 내용을 일괄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구에 접수한 7자형 세대가 중복된 평면의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이유 때문에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열려진 공간을 만들기 위해 비워 놓은 공간의 개구부를 의미없는 가벽으로 막아 직선화 시킨다면 허가될 수도 있다는 조건을 어떻게 건축주에 설명하여야 할지 난감합니다.

통제위주의 획일화된 군사문화로부터 문민시대로 전환되었을 때의 기대는 다양성의 인정을 발판으로 그동안 억눌렀던 우리의 문화적 잠재력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한강변의 무표정한 풍경과 신도시의 무의미한 거리를 이제는 답습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세계화」, 「삶의 질」 등의 구호는 이제 아이들에게도 친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한걸음이라도 앞서 나가야 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간단한 싱크대의 주위에 칸막이를 하여야 하고, 모든 공동주택은 일자로만 지으라는 규범을 강요하는 감사원의 의지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건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건축은 단순한 구조체계와 물량적인 계수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관습에서부터 정신문화에까지 걸치는 포괄적이며 함축적인 결과입니다. 건축이 그 시대적 상황을 총체적으로 표징하므로써 결과적으로는 문화적 상징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감사원이 제시하는 전과 다름없는 단순논리적인 규범은 우리의 건축문화가 계속 미궁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외에 또다른 사안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충분한 법과 대응으로 처리되는 현실 사이에서 부조리와 부실공사 등으로 미운 오리가 되어버린 건축의 모습을 바로잡기 위한 감사원의 부단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으나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까지 섬세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목청을 높여 보았지만 감사원이라는 벽 앞에서 아무도 감히 반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문건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이 글을 쓰는 것이 만용에 가깝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토론의 기회가 만들어져 각각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대화가 가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문화에 대한 진정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1996. 5. 20